

# HYUNDAI E&C TODAY

Vol 404  
2021/8/27 FRI

발행인 윤영준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을지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 2021 현대건설 상반기 수주 결산!

남다른 각오로 임차게 출발한 2021년. 우리 회사는 연일 굵직한 프로젝트를 따내며 글로벌 건설 명가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사보신문>에서는 올 8월까지 우리 회사가 쌓은 경이로운 수주 기록을 정리했다.



## 현대건설이 짓는 대한민국 대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이 페이지는 요청에 의해 blank 처리되었습니다.



UNLIMITED  
HYUNDAI E&C

현대건설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현대정신'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사보신문>은 구체적 실천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건설 리더'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건설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 COLUMN

제갈량이 말하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자질

### TRAVEL

우주 대스타와 서점 주인의 찐 러브스토리

### INTERVIEW

올림픽 4강의 주역 양효진·정지윤 선수



# Going all out for safety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conference held on August 9

Our company is making all-out efforts to manage construction sites in a safer way by putting a top priority on safety management. Our company held a conference to pledge our commitment to safety management on August 9. The event, held in compliance with required quarantine guidelines, was designed to prevent major accidents and create safer workplaces.

related investments. Our company plans to expand the total amount of orders for excellent subcontractors to about 500 billion won with a view to offer benefits to the subcontractors securing a lower risk of accidents through thorough safety management. The "one strike out" system, previously introduced exclusively for major accidents, will be further applied to include repeated industrial accidents.

Our company will increase the importance of safety-related factors from five percent to 20 percent. The new registration and tender participation of non-compliance companies will be restricted in order to enhance subcontractors' capabilities to manage safety. Our company will also introduce a new system to pay a half of safety management expenses in advance to enable our subcontractors to make more active efforts for safety management from early stages of construction.



현장 점검 연출 사진

# 철저한 안전대책 도입 ... 안전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8월 9일 전 현장 안전결의대회 실시 ... 협력사 인센티브 늘리고 퇴출 제도 강화 등 마련

우리 회사가 안전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두고 철저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체제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안전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로 확대하기로 했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춘 협력사에게는 공사 물량 배정에서 추가-우선하는 인센티브를 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만 적용했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제도는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협력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및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협력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게끔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초기 현장부터 꼼꼼하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 우수 협력사의 인센티브 제공 등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안전 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확고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Busan Beomcheon District 4 redevelopment project awarded

Our company is about to see the amount of orders for urban renewal projects reach two trillion won three years in a row.



The apartment complex was named RENAICENT which was coined to signify the "renaissance" of the Beomcheon area and the residential "center" in Busan.

Our company recently achieved orders for reinforcement work in succession. The Ulsan New Port South Breakwater reinforcement project was designed in response to the sea level rise and the increasing intensity of typhoon. Section 1-1 includes the reinforcement work of the 780-meter breakwater and a secondary work, while Section 1-2 involves the reinforcement work of the 1,100-meter breakwater and a secondary work.

Our company recently achieved orders for reinforcement work in succession. The Ulsan New Port South Breakwater reinforcement project was designed in response to the sea level rise and the increasing intensity of typhoon. Section 1-1 includes the reinforcement work of the 780-meter breakwater and a secondary work, while Section 1-2 involves the reinforcement work of the 1,100-meter breakwater and a secondary work.



Korean Civil & Architectural Award in the category of water resources and maritime facilities.

# 6200억원 규모 부산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수주

우리 회사가 부산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하며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 또한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참여한 세계적인 건축디자인그룹 칼리슨RTKL과의 협업을 통한 바램과 물결, 고품격 크루즈를 모티브로 특화 디자인을 제안했다. 여기에 스카이 커뮤니티 3개소와 북측 실내 골프연습장·피트니스센터 등을 갖춘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테라스 하우스를 계획해 주거 만족과 단지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범천4구역 수주로 지난해 시공권을 따낸 범천 1-1구역과 함께 범천동에 4000여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1-2공구 보강공사 연달아 수주

우리 회사가 최근 울산신항 남방파제(1-1공구) 보강공사와 1-2공구 보강공사를 연달아 수주했다.

(1-2공구)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우리 회사가 2009년 준공한 울산신항 남방파제 제1공구는 수자원해양시설 최우수상(토목건축기술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리 회사는 당시 공기 및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던 '대형 슬릿 케이스 제작과 운반 거치 공법'(신기술 444호)을 적용해 국내 최초로 5000t급 대형 반원형 슬릿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시공했다. 현장 관계자는 "유수의 경쟁사를 제치고 공사를 따낸 만큼 현대건설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고품질·안전 시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Demonstration of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for tunnel construction



Our company is taking the initiative in construction innovation by applying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to the Byeollae Line (double track railway) project. Our company successfully demonstrated the introduction of the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using TV White Space (TVWS) and the "smart glass" technology, the first of their kind among domestic builders.

technology using TVWS enables worker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those outside an underground tunnel under construction through wireless internet.

With the help of the first introduced smart glass technolog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wireless communication, workers at the construction site and those working on the project at the head office can monitor the same scenes in real time and hold a web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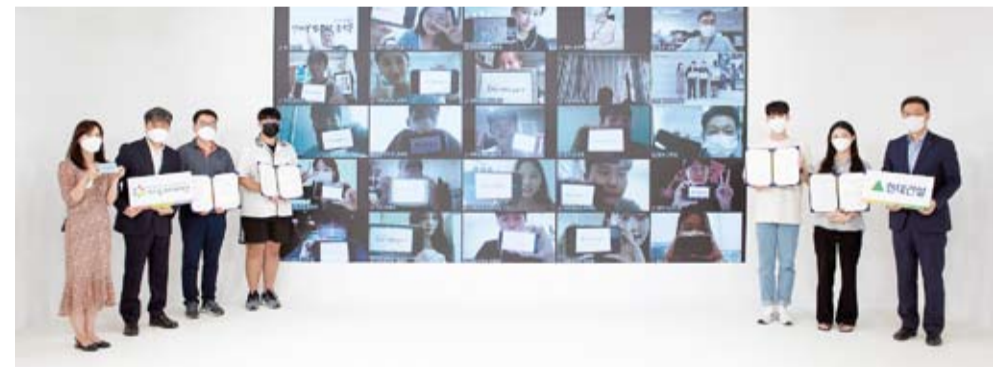
# TV유휴대역 활용한 무선통신망·스마트 글래스 ... 터널 공사 현장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우리 회사가 터널 공사 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며 건설 현장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회사는 최근 국내 건설사 최초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TV유휴대역(TVWS)을 활용한 무선통신망'과 '스마트 글래스' 기술의 실증에 성공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하 터널, 도심지와 떨어져 있는 산간 오지 등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현장에 비대면 원격 지원을 할 수 있어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 현장에도 도입해 현장 시설물 점검, 안전점검, 긴급 조치 등 광범위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하 터널, 도심지와 떨어져 있는 산간 오지 등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현장에 비대면 원격 지원을 할 수 있어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 현장에도 도입해 현장 시설물 점검, 안전점검, 긴급 조치 등 광범위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7기 수료식



우리 회사가 8월 20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스텐디오 랩에서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7기'의 수료식을 가졌다.

대학생이 학업 진행과 진로 설정을 도와주는 교육장학 활동이다. 단순 조별 구성이 아닌 청소년의 장애 희망에 맞춰 해당 분야 전공 대학생과 임직원을 선발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선bio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은 8월 말까지 8기를 모집한다. 8기 봉사단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직원과

# 'AI 영상인지 장비협착방지시스템' 전 현장 적용

우리 회사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장비협착방지시스템'을 전 현장에 도입해 건설 현장의 사고자해를 없앴다.



'AI 영상인지 장비협착방지시스템'은 기존 초음파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 최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이다. 과거 시스템은 사람과 사물을 구분할 수 없어 작업 중 불필요한 알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장 활용도가 낮았다. 새롭게 도입한 기술은 AI 기반의 카메라 영상 분석으로 사람이 접근했을 때만 알람이 울려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템을 도입하는 한편, 특수 상황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기반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기존 무선 통신 기반 거리인식 기술이 BLE(Bluetooth Low Energy: 저전력 블루투스) 통신 방식으로 정확도가 떨어졌다면, UWB(Ultra-WideBand: 초광역대 무선기술)는 작업자와 중장비 간의 거리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회사는 전방 시야가 가려져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기술 보유 업체와 꾸준히 협업할 방침이다. 먼저 사각지대에 추가 카메라를 설치해 가상으로 사각지대 너머의 전방 화면을 볼 수 있는 시스템

# 업계 최초 입주민 대상 프리미엄 피트니스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가 스포츠 플랫폼 'GV클러스터'와 주거 서비스 개발 및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업계 최초로 입주민 대상 프리미엄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 업무협약은 디에이지(THE H) 입주민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민들은 커뮤니티 공간뿐 아니라 단지 밖에서도 다양한 피트니스 콘텐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디에이지 개포 단지부터 적용된다. 디에이지 입주민 전용 애플리케이션 컨시어지 메뉴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특화 설계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주거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단지 밖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객만족 상품을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 GROUP NEWS

# Genesis previews the images of GV60

Genesis August 19 officially revealed exterior and interior images of the GV60, the brand's first electric vehicle based on dedicated EV platform.



The GV60 is based on its dedicated EV platform known as E-GMP (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marking the brand's move towards electrification.

its signature design experience to the GV60's body, bringing the sleek silhouette drivers have come to expect from the brand.

The "G" in GV60 represents Genesis, while the "V" represents the vehicle's versatility. The number "60" is the lowest in the Genesis lineup and comes as the brand evolves its model-naming scheme to fit their unique design identity of "Athletic Elegance." Lower numbers will emphasize athleticism under the scheme, with elegance represented by higher numbers. Based on this system, the GV60 is Genesis' most athletic model yet.

The front of the GV60 features a design optimized exclusively for the electric vehicle. The iconic and progressive Two-Line Quad Lamps add character to a refined and voluminous body. A wider and more athletic Crest Grille has been placed below the Quad Lamps to emphasize the dynamic performance of the GV60 and also to increase the cooling efficiency of the high-voltage batteries in the underbody.

The GV60's exterior design highlights its high-performance image along with a dynamic and smooth appearance. Genesis delivers



# 2021 현대건설 상반기 수주 결산 글로벌 건설 명가, 경이로운 수주 릴레이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



네이버 새중 데이터센터



패루 친체로 신공항

##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 투자개발 사업 자본투자 및 EPC

제주시 북서부 한림항 인근 해상에 조성되는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이후의 첫 해상풍력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및 서남해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해 산재생 에너지 시장 및 친환경 사업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내용:** 해상풍력 100MW(5.56MW×18기) EPC 총괄 및 해상시공담당  
**공사금액:** 5063억원(당사분 2529억원)

## 네이버 새중 데이터센터 2-1/2-2단계

최소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다. 우리 회사는 2-1단계 지하골조 및 154kW 관로공사와 2-2단계 지상철골 및 154kW 장비, 케이블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건축·운영 전 과정에 자연친화적이고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테크의 집약체.

**공사내용:** 연면적 14만8123㎡, 지하 3층 지하골조 공사/지상 1층~지상 3층 2개동(서버동, 운영동)  
**공사금액:** 882억원 / 413억원

## 패루 친체로 신공항 부지정지 공사 및 터미널 PKG2(분공사)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15km 떨어진 친체로시에 연간 57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한다. 연초 패루지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신공항 부지정지 공사를 수주, 후속 프로젝트로 본공사 수주에도 성공했다. 본 공사는 설계기

자인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하며, BIM을 적용해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디지털화에 관리할 예정이다.

**공사내용:** 신규 국제공항 부지정지(성토 1300만㎡) 및 지반 개량 / 신규 국제공항 여객터미널·관제탑·활주로 및 계류장  
**공사금액:** 1억4400만 달러(당사분 7900만 달러) / 3억6270만 달러(당사분 1억2694만 달러)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프로젝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전용선 37.7km, 공용선 37.1km, 주요 정거장과 차량기지, 궤도·기계·전기·신호·통신 등을 건설 및 유지관리한다. 설계 적합성, 자금조달방안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로 일관된 성과로 수도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큰 획을 그어 갔다.

**공사내용:** 총연장 74.8km(전용선 37.7km, 공용선 37.1km 등)  
**공사금액:** 4조3857억원

## 싱가포르 SP그를 라브라도 오피스 타워(1단계) 및 변전소/관리동 신축공사

지난 3월 우리 회사는 발주처인 싱가포르 최대 전기가스 배급사 SPP로부터 본 공사의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 싱가포르 서남쪽 파시르 판장 지역, 현재 우리 회사가 수행 중인 230kW 지하변전소 부지정지 및 지하공사와 같은 부지에 진행한다. 발주처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는 현장이다.

**공사내용:** 오피스타워(지하 4층~지상 34층) 홀라 이 및 파일공사, 변전소(지하 4개층), 관리동(지상 5개층) 연면적 9만5457㎡  
**공사금액:** 1억9205만 달러



**수주 특집** 남다른 각오로 임하게 출발한 2021년, 우리 회사는 연일 굵직한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며 글로벌 건설 명가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경기도 연초 '8인 수지 신장마을 9단지 리모델링 사업' 단독 수주로 마수결이기에 성공한 이래 올해 첫 해외의 수주인 '사우디 하일-알주프 승전선 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낭보를 올리고 있는 것. 최근에는 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원 달성 역시 눈앞에 두고 있다. 어느덧 2021년의 반을 지난 현재, 올해 우리 회사가 쌓고 있는 경이로운 수주 기록을 정리했다. 글·정리=이진우



문무대왕과학연구소

## 혁신원자력연구단지(문무대왕과학연구소)

기술인프라를 바탕으로 1위를 차지해 우리 회사의 건축 및 플랜트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 경북 경주에 첨단연구동,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 정밀분석시설 등을 포함한 원자력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이 공사는 경북 원자력클러스터와 연계해 향후 소형 원자로(SMR) 및 노후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등 원자력 연구개발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사내용:** 원자력 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총 17개동(부지 조성 13만7856㎡ / 시설 구축 연면적 52만3125㎡, 지하 1층~지상 5층)  
**공사금액:** 2323억원

## 사우디 라파 380kW 변전소

사우디 하일-알주프 변전소 380kW 승전선 공사에 이어 추가로 수주한 프로젝트. 타업체의 자가 투찰 기조를 극복하고 사우디

현지와 정책에 부합해 얻은 성과다. 우리 회사와 사우디 전력청의 단단한 유대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의 전통적인 텃밭인 사우디에서 쌓은 기술력과 네트워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공사내용:** 380kW 규모 변전소  
**공사금액:** 7100만 달러

## 힐스테이트 그레이트 나인 시공권 확보

2021년 수주 릴레이의 시작점인 경기도 용인 신장마을 9단지 리모델링 사업, 우리 회사가 리모델링 전담 조사를 구성한 후 최초로 단독 수주한 현장이다. 정평천 물길 따라 명품 경관을 선사할 이 단지의 이름은 '힐스테이트 그레이트 나인'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주거명작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공사내용:** 지하 3층~지상 23층 9개동, 공동주택 914세대 및 부대시설  
**공사금액:** 2280억원



힐스테이트 그레이트 나인

### JAN

<b>신용산역 복속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b> • 지하 5층~지상 33층 5개동, 공동주택 340세대, 오피스텔 55실 및 부대시설 • 3037억원	<b>사우디 하일-알주프 380kW 승전선</b> • 375km 구간 380kW 초고압 송전선 공사 • 191000만 달러 ★ 올해 첫 해외 수주 프로젝트	<b>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b> • 지하 4층~지상 49층 5개동, 공동주택 861세대, 오피스텔 228실 및 부대시설 • 2847억원	<b>힐스테이트 남산</b> • 지하 3층~지상 9층 2개동, 공동주택 282세대 및 부대시설 • 643억원	<b>SW 드림타운</b> • 연면적 7만8405㎡, 지하 6층~지상 6층, 지식산업센터·업무시설 등 • 994억원	<b>KOTTT 시험연구관 과학 신사옥</b> • 연면적 5만966㎡, 지하 4층~지상 6층,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업무시설 • 963억원	<b>힐스테이트 달성광역역</b> • 지하 5층~지상 49층 3개동, 공동주택 320세대, 오피스텔 72실 및 부대시설 • 1034억원	<b>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b> • 지하 6층~지상 20층 1개동, 오피스텔 369실 및 판매시설 • 798억원	<b>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아부공 축조공사</b> • 안벽공 1050m, 통륙호안공 226.1m, 준설공·부지조성공·상부 시설공·부대시설공 1식 • 2851억원(당사분 1140억원)	<b>인천 경단 물류센터</b> • 연면적 14만9650㎡, 지하 1층~지상 9층, 물류창고 • 1114억원	<b>고양 덕은 지식산업센터</b> • 지하 6층~지상 23층 3개동,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 2238억원	<b>힐스테이트 라파노 상승</b> • 지하 1층~지상 3층 블록형 단독주택 817세대, 452세대 및 부대시설 • 1697억원	<b>시티오씨엘 3단지(비주관)</b> • 지하 4층~지상 46층 8개동, 공동주택 977세대, 오피스텔 902실 및 부대시설 • 5258억원(당사분 1577억원)
---	---	---	--	--	---	---	--	--	--	---	---	---

### MAR

<b>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 2차</b> • 지하 5층~지상 41층 4개동, 공동주택 390세대 및 부대시설 • 1271억원	<b>합정동 447 일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권 확보</b> • 지하 3층~지상 15층 2개동, 공동주택 177세대 및 부대시설 • 504억원	<b>힐스테이트 몬테로이</b> • 지하 4층~지상 29층 40개동, 공동주택 3731세대 및 부대시설 • 7118억원		<b>대전 도마·반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b> •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동, 공동주택 1779세대 • 3737억원(당사분 1906억원)	<b>가산 데이터센터</b> • 설계/PM • 15억원	<b>검단신도시 AA16BL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b> • 지하 4층~지상 25층 13개동, 공동주택 1535세대 및 부대시설 • 3211억원(당사분 1606억원)	<b>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6-8공구 A15BL 공동주택</b> • 지하 2층~지상 26층 12개동, 공동주택 734세대 및 부대시설 • 2673억원	<b>경주 보문초교지구 도시개발사업</b> • 부지조성공사 110만4305㎡ • 745억원(당사분 596억원)	<b>힐스테이트 송의역</b> • 지하 4층~지상 47층 5개동, 공동주택 748세대, 오피스텔 264실 및 부대시설 • 1884억원	<b>패키지형 주택개발리스 (여산당정 2-A11, 고당상승)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b> • 아산 공동주택 787세대 / 고양 블록형 단독주택 107세대 • 아산 2064억(당사분 1135억원) / 고양 516억(당사분 284억)	<b>별내 15BL 지식산업센터</b> • 지하 2층~지상 15층, 지식산업센터 • 1023억원	<b>힐스테이트 익산</b> •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공동주택 454세대 및 부대시설 • 940억원	<b>역삼동 832 오피스텔</b> • 지하 7층~지상 37층 1개동, 오피스텔 206실 및 근린생활시설 • 1704억원
---	--	--	--	--	--------------------------------------	---	--	---	--	--	---	---	---

### MAY

<b>Actis 데이터센터</b> • 연면적 2만16648㎡, 지하 4층~지상 10층, 데이터센터 • 2281억원	<b>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b> • 지하 2층~지상 49층 8개동, 생활숙박시설 2554실 및 부대시설 • 9015억원	<b>영등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b> • 광역복합환승센터 L=200m • 2039억원(당사분 1121억원)	<b>대구 동구 신암10구역 주택 재건축사업</b> • 지하 3층~지상 15층 13개동, 824세대 • 1813억원	<b>대구 태평78 가로주택정비사업</b> • 지하 4층~지상 37층 3개동, 공동주택 373세대 및 오피스텔 85실 • 1090억원	<b>금오생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b> •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동, 공동주택 832세대 • 1440억원	<b>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시공권 확보</b> • 지하 4층~지상 4층 4개동, 공동주택 120세대 • 731억원	<b>힐스테이트 초곡</b> • 지하 2층~지상 29층 18개동, 공동주택 1866세대 및 부대시설 • 3290억원	<b>힐스테이트 더 언저</b> •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동, 공동주택 744세대, 오피스텔 2669실 및 부대시설 • 1166억원	<b>힐스테이트 황금역 1, 2차</b> • 지하 4층~지상 40층 5개동, 공동주택 337세대, 오피스텔 74실 및 부대시설 • 1166억원	<b>전주 여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권 확보</b> • 지하 2층~지상 17층 27개동, 공동주택 1994세대 및 부대시설 • 4246억	<b>평택 합정주공 재건축</b> • 지하 2층~지상 35층 17개동, 공동주택 1944세대 및 부대시설 • 3759억원	<b>대전 용계동 오피스텔</b> • 지하 2층~지상 10층, 오피스텔 432실 • 971억원	<b>화성 봉담 내리지구 2BL 공동주택</b> •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공동주택 2333세대 및 부대시설 • 4596억원
---	---	--	--	--	---	---	--	---	---	--	---	--	---

### JUL

<b>고양 상송 5-2BL 지식산업센터</b> • 지하 3층~지상 9층, 지식산업센터 • 1669억원	<b>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b> • 지하 7층~지상 20층 4개동, 공동주택 211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1422억원	<b>한울원자력본부 중앙정비 구역개발</b> • 기기정비공간 연면적 7333㎡, 지하 1층~지상 2층 • 217억원		<b>베트남 발전소</b> • 1400MW	<b>가평 읍내지구 공동주택</b> • 지하 2층~지상 23층 7개동, 공동주택 451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879억원	<b>오산 갈곶동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b> • 지하 2층~지상 23층 7개동, 공동주택 92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1650억원	<b>케이스퀘어 데이터센터</b> • 설계 • 17억원	<b>HMG 드라이빙센터</b> • 인테리어 • 76억원	<b>울산신항 남방파제(1-1공구) 보강공사</b> • 방파제 보강 780m 및 부대공 등 • 633억원(당사분 506억원)	<b>인천 시티오씨엘 4단지 주상복합 보강공사</b> • 지하 3층~지상 47층, 공동주택 428세대 및 오피스텔 336실 • 2299억원(당사분 690억원)	<b>보령 청정수소사업(Green Energy Program Phase 2) FEED</b> • 친환경 Blue 수소 생산(25만t/연), 수소 액화(5만t/연) 및 제반 부대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	<b>울산신항 남방파제(1-2공구) 보강공사</b> • 방파제 보강 1100m 및 부대공 1식 • 776억원(당사분 621억원)	<b>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권 확보</b> • 지하 3층~지상 36층 18개동, 공동주택 2604세대 및 부대시설 • 6201억원
--	---	--	--	----------------------------	---	--	--------------------------------------	---------------------------------------	---	--	--	---	--



이 페이지는 요청에 의해 blank 처리 되었습니다.

## 제갈량의 병서 『장원』에서 찾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자질

**인문학칼럼** 직장생활이 녹록하지 않은 이유는 업무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선후배 등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경쟁력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과 인간관계를 끌고 나가는 기술이다. 조직 내 인간관계의 기술을 일러주는 고전으로는 제갈량의 병법서 『장원(將苑)』이 독보적이다. 글=양선의 중앙콘텐츠팀 실장 (소설가, 대기자)



### 리더십을 다룬 고전 『장원』

대략 병서(兵書)라 하면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위료자(尉繚子)』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육도(六韜)』 『삼략(三略)』 등 조선시대 무장들의 과거 시험 과목이었던 ‘무학(武學) 7서’가 널리 알려져 있다. 병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여기에 『장원(將苑)』 『손빈병법(孫臏兵法)』 『삼십육계(三十六計)』 까지 10서 정도는 읽는 것이 기본이다.

병서는 전쟁에서 적과 맞서는 음모기책과 기만술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다. 제갈량은 “전쟁이 아닌 평시에 거짓과 꾀사를 일삼는 자들이 조직을 망친다”고 할 정도로 병법의 기술을 보통 때에 활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제갈량의 병서 중 하나인 『장원』은 ‘적’이 아닌 자신의 군대를 단속하는 장군의 인간관계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른 병서와 차별화된다. 그 내용은 현대 리더십론에 무척 가깝다.

장수의 자질과 덕목을 논하는 『장원』은 다른 말로 ‘심서(心書)’라고 부르기도 했다. 리더십은 리더의 ‘마음가짐’과 연결된다는 의미다. 책에는 제갈량의 마음가짐과 생각, 인간에 대한 통찰과 대응이 50편 약 5000자 분량으로 새겨져 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장수인지, 장수는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하는지, 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망치는지, 특정 개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슨 직책을 맡겨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관리직에 오르면 팀원의 특성을 파악해 그에 맞는 일을 맡겨야 능률이 오른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연차가 쌓일수록 사람을 보는 안목이 중요한 이유다. 이런 점에서 『장원』은 관리자와 관리자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의 리더십 교재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 조직의 흥망에 영향을 주는 유형들

『장원』 3편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사람의 품성을 변별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외견상 온화하고 선량하지만 알고 보면 매우 거짓되고 간사한 자가 있고, 겉으로는 용감하지만 실은 겁이 많은 자도 있으며, 늘 성심을 다하는 듯 행동하지만 실은 불성실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제갈량은 이 책에서 사람을 시험하고 관찰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식견과 능력, 행동거지 등을 눈여겨보는 기술을 나열한다.

제갈량이 말하는 인간 운영술은 ‘적재적소다. 개괄적 으로는 사람을 그의 그릇 크기에 따라 달리 써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갈량은 『장원』에서 조직의 대리쯤으로 볼 수 있는 십부지장(병사 10명을 통솔하는 사람)도 내부의 간사한 자를 알아보고 제양과 환난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부지장은 근면성실을 기본으로 일처리 능력이 엄밀해야 하고, 천부지장이 되려면 정직하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하는 데다 용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직을 망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도 나열한다. 면피에 급급한 자,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 부하를 돌보지 않고 혹사시키는 상관, 기발한 기술로 사익(私益)을 챙기고 부하의 춥고 배고픈 사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 등이다. 조직 생활을 하면서 쉽사리 만날 수 있지만, 뭐라 설명하기도 애매한 유형들을 꼭 떨어지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 통쾌하게 읽을 수 있다.

### 제갈량이 말하는 리더의 덕목

타인을 알아보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자격 있는 리더’가 되는 일은 더 중요하다. 『장원』은 장수가 스스로 경계해야 할 항목으로 ▶탐욕 ▶실력 있는 사람에 대한 질투심 ▶남을 욕하는 말을 쉽게 믿고 아첨을 즐기는 일 ▶남의 단점은 금세 알아보면서 자신의 단점은 모르는 것 ▶결정 장애 ▶주색을 밝히는 황음(荒淫) ▶거짓과 꾀사를 일삼는 가벼운 입 ▶말이 추잡하고 예의를 벗어나는 무례 등을 든다.

우리는 흔히 뛰어난 장수를 용감무쌍하고 사나운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제갈량은 용감무쌍하나 난폭하고 완강한 모습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는 뛰어난 장수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뛰어난 장수는 윗사람의 충애를 기뻐하지 않고, 굴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성에게 음탕하게 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스스로 망하게 되거나 조직에 쓸모없는 장수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교만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다. 인색한 자 역시 비록 그 재주가 빼어나도 자격 있는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예의의 쓸모’이다. “군자를 모멸하면 마음을 다하는 자가 없게 되고, 소인을 모멸하면 힘을 다하는 자가 없게 된다”는 『서경(書經, 동양 정치사상의 본질기로 불리는 중국 고전)』의 말을 빌려 모멸의 연사가 얼마나 자신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인지 설명한다.

###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장원』은 “이렇게 하면 당신도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현대의 자기계발서와는 그 결이 다르다. 사람은 모두 타고나는 성품이 다르고,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 그릇과 성품이 되는 사람, 리더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가 구체적인 임무와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장원』이 추구하는 리더십이다.

중국의 작가 샤리권(夏立君)은 책 『시간의 압력』에서 초(楚)나라 곳간지기에서 진(秦)나라 재상에 오른 이사를 비판하며 ‘한때 왕성했던 정신을 거세하고 인성의 빛을 잃은 인물’로 묘사했다. 진시황의 유조(임금의 유언)를 조작해 황제를 바꾸는 조고의 역사적 사기극에 동참했으나, 결국 허리가 잘리는 형을 받아 죽는 그는 그저 정체성을 잃고 헤매던 ‘출세 지상주의자’였다.

『장원』 또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처세가 아닌 ‘인성’을 강조한다. 처세는 어떤 위치에 오르기 위해 인간됨을 쓰면서 그 자리를 쟁취해내는 기술이 아니다. 처세란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각자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알고,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기술이다. 무엇보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인물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각각에 맞춰 능란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운이 닿으면 성공하는 것이 처세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감당할 수 있는 임무와 자리는 무엇인지 잘 아는 것만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없다. 『손자병법(孫子兵法, 동서고금 최고의 군사 고전)』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음)’라는 문장이 있다. 제갈량이 한 말은 아니나 『장원』을 통해 통찰력을 얻은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성어(成語)가 아닐까.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쓰촨 청두의 무후사에 있는 제갈량 상.





# 우주 대스타와 서점 주인의 찐 러브스토리 〈노팅 힐〉속 런던

**영화 따라 랜선투어** 한창 눈부시게 멋있던 두 배우의 모습을 간직한 영화 〈노팅 힐〉은 영국의 로맨틱 가이 ‘휴 그랜트’와 활짝 웃는 표정이 매력적인 ‘줄리아 로버츠’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대히트작이다. 1999년 개봉했지만 지금도 종종 극장에서 만날 수 있고, OST인 ‘She’도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들려온다. 여전히 많은 이에게 회자되는,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이 영화에는 런던의 풋풋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보면 좋은 영화로 자주 손꼽히는 〈노팅 힐〉, 그 속의 런던을 들여다본다. 글·사진=루꼴 여행작가

### 1999년부터 이어진 로맨틱 무비의 대가!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이라는 엘비스 코스텔로의 노래 ‘She’는 첫 소절만 들어도 누구나 알 만큼 유명하다. 원곡은 프랑스의 국민 가수 샤를 아즈나부르가 1974년에 발표했는데, 당시 영국에서 이 곡의 인기는 어마어마했다. 1983년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 진행된 송년회 오페라 공연에서 최초로 클래식 가수가 아닌 대중음악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른 것이 화제가 될 정도. 그 후 이 노래는 영화 OST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노래 가사는 영화 속 내용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해 더욱 많은 이의 공감을 받았다.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사랑스러운 대스타들이 주인공을 맡아 시작부터 화제였던 영화 〈노팅 힐〉은 영국의 런던이 배경이다. 영국은 유럽에 있는 섬나라로 그레이트브리튼섬(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과 북아일랜드로 이뤄져 있다. 인기 소설 ‘해리 포터’의 무대이고, ‘셜록 홈즈’가 탄생한 나라이기도 하다. 특이하게도 아직까지 왕실이 존재해 여전히 언론에서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고, 시민들은 이에 열광하곤 한다. 영화의 주 무대가 되는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인 휴 그랜트가 사는 곳은 런던의 노팅 힐(Notting Hill)이다.

### 노팅 힐과 포도벨로 마켓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

노팅 힐은 런던 중심가에서 히스로 공항 방향, 중심가를 기준으로 왼편에 자리한 작은 동네다. 런던을 대표하는 쇼핑가로 이미 유명했으나 영화가 개봉한 후 찾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다. 과거에는 이곳이 주변 농가에서 생산된 야채와 곡물을 모으는 곳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조용한 주택가이지만 노팅 힐에서 웨스트본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레스토랑과 카페, 선물가게 등으로 가득해 한가롭게 구경하며 걷기 좋다.

주인공 윌리엄 태커(휴 그랜트)는 아내가 바람 나서 이혼하게 된 평범한 남자다. 노팅 힐에서 매달 적자가 나고 있는 여행 서점을 운영하면서 괴짜 예술가 친구인 스파이크와 함께 산다. 할리우드 인기 스타인 애나 스콧(줄리아 로버츠)은 개봉을 앞둔 영화 홍보 차 런던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 서점에 들러 윌리엄과 인사를 나누게 된다. 그녀의 팬이었던 윌리엄은 마냥 흥분 상태. 그 후 길에서 다시 만난 애나와 부딪쳐 옷에 주스를 쏟자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해 옷을 갈아입게 한다. 놀랍게도 애나는 그 자리에서 윌리엄에게 키스를 하고,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한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거짓말처럼 계속 엇갈리는 둘. 줄다리기를 하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흠뻑 빠져 있다가 런던의 아기자기한 풍경에도 반하게 된다.

그렇게 윌리엄과 애나의 사랑이 시작된 노팅 힐에서는 매주 토요일이면 재미난 마켓이 펼쳐진다. 1950년대 카리브해

서 이민 온 사람들이 물건을 내다 팔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지금의 포도벨로 마켓(Portobello Road Market)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2km 정도의 거리에 2000여 개 넘는 매장이 밀려 펼쳐지는 이 시장은 영국 최고의 빈티지 제품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 쇼핑을 좋아하거나 예쁜 사진 촬영에 관심 있는 사람, 혹은 빈티지 제품에 열광하는 이들이라면 가보는 것이 좋다. 골목을 걷다 보면 발견하는 파란 간판의 ‘The Notting Hill Bookshop’은 영화에 나왔던 그 서점은 아니지만 영화 속 감성을 그대로 살려 현재도 운영 중이다.

### 그녀의 호텔이자 기자회견 장소, 더 리츠 런던

윌리엄이 애나를 만나기 위해 호텔로 달려갔다가 매니저에게 들롱날까 봐 (말과 사냥개) 잡지 소속 기자라고 둘러대며 그녀를 보호해 주는 장소는 ‘더 리츠 런던(The Ritz London)’이다. 1906년에 지어져 지금껏 전 세계의 유명 인사나 영국 왕실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텔에서 룸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클래식하면서도 럭셔리하다. 호텔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1층 로비에 위치한 ‘팜 코트(Palm Court)’다. 아르데코 양식에 아자수가 늘어서 있어 실내지만 상당히 고급스럽고도 이국적이다. 술 한잔 즐길 수 있는 바(Bar)로도 운영되지만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낮 시간에 운영하는 ‘애프터눈 티’다. 영국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문화, 애프터눈 티. 반으로 자른 스펀 위에 클로티드 크림과 딸기 잼을 잔뜩 얹어 흥차와 함께 즐기는 오후의 간식 타임이야말로 영국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가장 쉽고 맛있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워낙 인기가 많아 두어 달 전부터 예약해야 맞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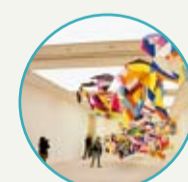
사랑 싸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오해하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던 두 사람. “내가 못되게 굴었지만 다시 받아준다면 영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애나에게 윌리엄은 “그걸 받아들이기엔 내가 지금껏 평범한 사람이고 너는 나에게 벽찬 사람이니 거절하겠다”고 한다. 마음에도 없는 말로 그녀를 밀어냈다가 이내 그녀를 다시 찾아가는 곳이 더 리츠 런던 호텔이다. 기자회견장에서 곧 영국을 떠날 것이라고 대답하는 애나에게 윌리엄은 다시 기자인 척 질문을 하며 다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애나는 답을 정정한다. “영국에 영원히 머물겠다”고. 결국 그 둘은 한마음이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평범한 사랑을 기다리는 그녀와 특별한 사랑이 두려웠던 그의 훈훈한 러브스토리가 아름답게 그려진 영화. 활기찬 노팅 힐과 포도벨로 마켓, 그리고 화려한 더 리츠 런던을 무대로 다이내믹한 모습을 한껏 보여줘 더욱 기억에 남는다. 다가오는 가을, 옆구리가 시리다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운명의 짝을 찾아보기를! 혹시 아는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날 새로운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다.



1 평일엔 한가하지만 토요일만 되면 활기가 가득 차는 포도벨로 마켓. 2 골목을 걷다 보면 이름이 ‘노팅 힐’인 서점을 발견할 수 있다. 3 엔틱한 화려함이 멋스러운, 유서 깊은 더 리츠 런던 호텔.

### 언젠간 떠날 그날을 위해 아껴둔다 ‘영국 여행 팀!’



#### 사치 갤러리에 들러보세요~

현대미술품 컬렉터인 찰스 사치가 설립한 갤러리, 영국의 4대 갤러리 중 한 곳으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하다. 영국의 현대미술을 이야기할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 갤러리에서는 데이미언 허스트, 트레이시 에민 등 많은 인재를 발굴했다. 8월 13일부터 9월 4일까지는 ‘2021 포커스 아트페어 런던’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수이자 화가인 솔비의 ‘케이크’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 런던 여행 선물은 포트넘앤메이슨에서!

1707년 포트넘과 H 메이슨이 런던 피카딜리에 창립한 영국의 향차 및 식품 브랜드로 영국 왕실과 귀족들에게 향차와 식료품을 납품하면서 명성을 얻게 됐다. 1902년 국왕 에드워드 7세를 위해 만들어진 대표 향차 ‘로열 블렌드’는 깊고 풍부한 맛과 향 덕분에 지금껏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향차 외에도 쿠키, 티웨어 등이 선물로 인기가 많고, 매장에서 는 애프터눈 티도 판매한다.





# 올림픽 4강의 주역 양효진·정지윤 선수를 만나다

**피플인사이드** ‘힘들 땀 여자배구처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도쿄 올림픽 여자배구팀 경기는 선수들의 남다른 투지가 엿보였다. 도쿄 올림픽의 여독을 제대로 풀 시간도 없이 KOVO컵부터 21-22 정규시즌을 위해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의 양효진(이하 양)·정지윤(이하 정) 선수. 기거어 시간을 내준 도쿄 올림픽 여자배구의 두 스타를 만났다. 글=강은비



**Q** 도쿄 올림픽에서 기적 같던 명승부 잘 봤습니다.

**양**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어요. 워낙 다른 국가 선수들이 잘해서 결승 진출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을 이겼을 때는 그 순간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올림픽 한 달 전에 치렀던 시합에서 3-0으로 졌었거든요.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웃음).

**정** 올림픽에서 경기를 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큰 영광이었습니다. 큰 무대가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되고 압박감도 있었는데요. 돌이켜 보면 그 시간이 많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올림픽 출전이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국제 무대에 설 수 있었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순간을 꼽는다면?

**양** 8강 진출을 앞두고 치러진 일본과의 대결이요. 결코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팀 모두가 이겼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세트스코어 3:2 접전 끝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 저는 터키를 이기고 4강에 진출했던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매 세트가 힘든 경기였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팀원 모두가 하나 되어 경기에 임했기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양효진 선수는 태극마크와 작별한다고 들었어요.

**양** 그래서인지 일본전이 가장 많이 생각나요. 한일전을 계기로 팀원끼리 더 끈끈해졌고, 터키와의 시합에서도 자신감이 붙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은퇴는 대표 팀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마음먹었던 건데,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니 시원섭섭했어요.

**Q** 반면에 정지윤 선수는 이번 올림픽으로 태극마크를 처음 달았는데 기분이 어땠나요.

**정** 이렇게 큰 무대를 밟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발탁이 믿기지 않았습다.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시합이기 때문에 ‘팀에 피해를 주진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부담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그래도 저의 첫 올림픽이자 언니들의 마지막 올림픽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라는 마음이 짐으로 코트에 들어갔어요. 국제 무대를 경험 해보니 좀 더 높은 꿈과 목표를 가져야겠다고요. 이전의 각오와 연습으로는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Q** 올림픽이 끝나고 여자배구의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피부로 느끼나요?

**양**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세요. 복귀하고 잠시 휴가차 부산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은 분이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팬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정** 올림픽 현지에서는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줄 몰랐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입국했는데, 정말 많은 기자와 팬분들이 나와 계셔서 놀랐고 그때 처음으로 인기를 실감했던 거 같습니다.

**Q** 정규리그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올림픽에서의 경험이 도움될까요?

**양** 아무래도 국제 무대를 뛰다 보면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선수들의 배구 스타일도 보게 되고요. 배구에 관한 전체적인 관점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처음 올림픽 대표단이 되어 출전했을 때 스스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훈련하기도 했어요.

**정**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레프트 포지션으로 경기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적응하고 연습해야 되지만,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국내 시합에서는 좀 더 대담하게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Q** 강성형 감독님의 스타일은 어떤가요?

**양** 강 감독님과 대표 팀에서 함께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낯설진 않았습다. 운동할 때 빠고 있는 진짜 편하게 대해주세요. 무엇보다 열정이 엄청 대단하시거든요. 훈련법도 요즘 스타일에 맞게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 역시 며칠 동안은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고, 지금은 볼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정** 체력과 웨이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또한 운동할 때 밝은 분위기를 많이 강조하시는 편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명확해서 저도 팀 운동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게 있나요.

**양** 저의 기량이 떨어지지 않게 노력할 거고요. 블로킹을 더 잘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팀 목표는 지난해에 성적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꼭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 이번 시즌에는 레프트 포지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잘 적응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는 것이 올 시즌 목표입니다.

**Q**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배구단을 응원하고 있는 임직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양**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코로나가 지속되어 많이 지쳐 있으실 것 같은데, 배구 경기로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직관이 어렵더라도 중계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 많은 사랑과 응원을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할 테니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이라는 이름에 책임감을 갖고 이번 시즌 더 좋은 모습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건설&배구단 파이팅!





# 안전보건관리업무천재가된김 책임의노하우전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맵’ 알아보기



**현대건설 편리미엄** 업무를 하다 보면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규정·지침부터 프로세스와 R&R(역할과 책임)까지, 매번 헛갈리는 프로세스와 자료 위치를 보기 좋게 정리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맵. 신입사원일지라도 안전보건만큼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리=강은비

**Q1**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맵(이하 가이드맵)이란.**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관련한 모든 콘텐츠(규정, R&R, 사례 등)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파일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광안내 지도와 같은 ‘업무 지도’라 생각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신입사원일지라도 이 가이드맵을 이용하면 큰 어려움 없이 많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역할이다.

**Q2**



**가이드맵을 만든 특별한 이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오토웨이 및 시스템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른 위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내 규정·지침은 HMAP, 안전교육 교안은 HDOC, 위험성 평가 등록부는 HPMS에서 찾을 수 있다. 업무에 익숙한 베테랑 직원이라면 자료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지만, 신규 전입 직원이나 관리·감독자인 사업수행 직원은 파일을 찾는 것부터 시간이 걸려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모든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종의 안내서로, 현장과 본사 직원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Q3**



**가이드맵의 장점은?**

가이드맵의 최대 장점은 사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제일 첫 장의 가이드맵을 보고 본인이 알고 싶은 업무를 클릭하면 해당 업무의 세부 장표로 바로 이동하게 된다. 세부 장표에서 업무를 살펴보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클릭해 하이퍼링크로 해당 업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가이드맵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 오토웨이에 로그인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Q4**



**가이드맵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오토웨이에 있는 가이드맵(PDF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파일을 열어 맵을 보고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된다. 파일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토웨이 게시판(공지사항, HMAP, CI 사이트), 공문, 이메일 등으로 임직원에게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Q5**



**가이드맵 중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항목은?**

가이드맵의 목차를 보면 PDCA(Plan-Do-Check-Action) 절차에 맞춰 구성했다. 그중 현장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메뉴는 아마도 D파트(Do, 실행운영)일 텐데, 실무 직원이 자주 맞이하는 근로자(신규 입사자, 외국인 등) 관리 및 작업 허가서(PITW) 내용 등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샘플 자료들도 정리돼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란다.

**Q6**



**이외에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가이드맵은 국내 현장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일반적인 안전보건 업무 내용을 담았다. 전사에 배포하기 전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성을 확인해 봤는데, 사업본부 특성에 맞는 기술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추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맵 ‘기술편’을 제작해 10월 쯤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경영기획팀 김흥근 책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맵 사용을 위한 꿀팁!**

- 1 Acrobat Reader로 가이드맵 열기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PDF-X Change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여는 경우, 링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 원인을 파악 중에 있으니 불편하더라도 Acrobat Reader 프로그램으로 가이드맵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
- 2 기본 웹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로 설정  
가이드맵의 하이퍼링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웹브라우저가 Internet Explorer로 설정돼 있어야 한다. 회사 프로그램들이 Internet Explorer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본인 컴퓨터의 기본 웹브라우저가 Chrome 혹은 Microsoft Edge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접속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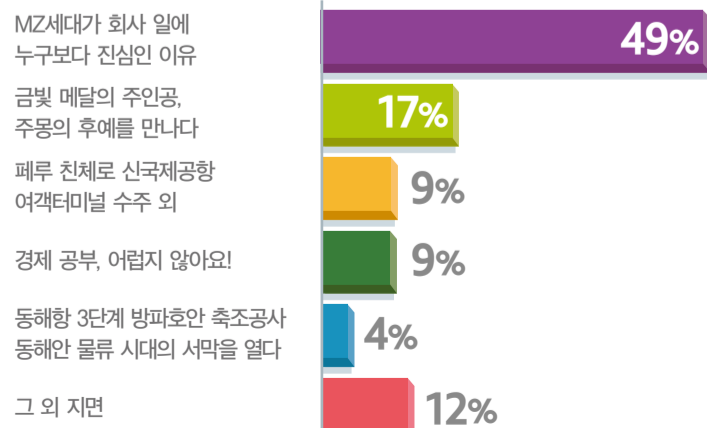
※지난 호 퀴즈 정답  
1. 양효진, 정지운 2. 도마 3. 그리스 아테네



**독자 참여 코너**

**Stay with Hyundai E&C Today!**

**Q 403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Q 다음 호에 읽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세대 간 공통점을 찾는 앙케이트**

**#계동사옥pic 안국 맛집 소개**

**#집에서 간단히 먹는 요리 레시피**

**#부동산 대책 기사**

**#재택근무 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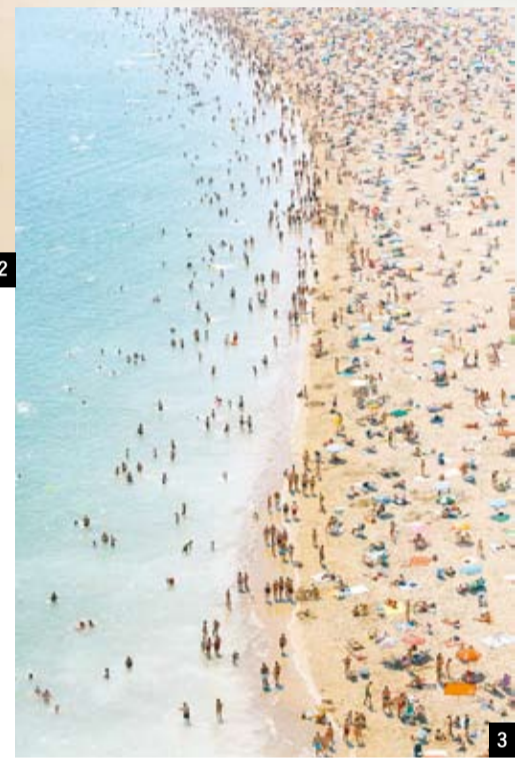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사보신문이 쏩니다!**



독자 의견을 QR코드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① QR코드 접속  
② 설문에 응답하고 주관식 답 보내기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 참여 기간 ~9월 10(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상품 소정의 상품(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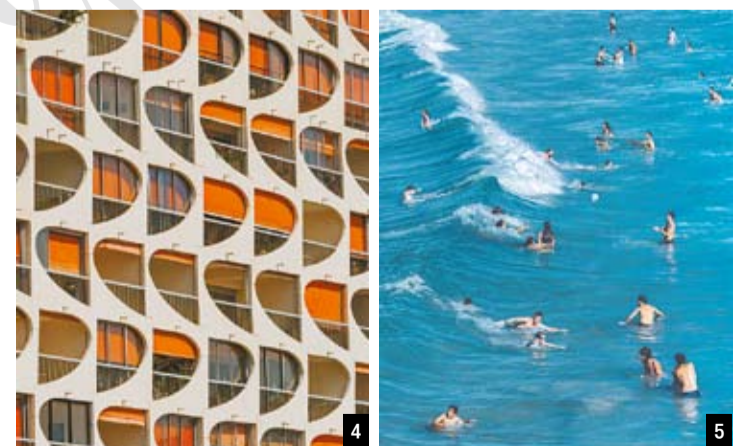
## 요시고 사진전: 따뜻한 휴일의 기록

2021. 12. 05 (일)까지  
그라운드시소 서촌



아날로그의 낭만을 사랑하는 스페인 포토그래퍼 요시고(본명 Jose Javier Serrano)의 개인전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라운드시소 서촌에서 감상할 수 있는 <요시고 사진전: 따뜻한 휴일의 기록>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프레임 안에 균형 있게 배치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사진들은 팬데믹으로 잊었던 풍경과 여행의 향수를 조금씩 불러일으킨다. 그 장소, 그 순간에 존재했던 영롱한 빛과 다정한 온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도록 사진에 기록한 그의 작품은 푸른 지중해를 둘러싼 유럽의 휴양지부터 마이애미, 두바이, 부다페스트 등 건축·다큐멘터리·풍경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해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영감의 원천인 '빛'을 세밀하게 다룬 작업부터 세계 여러 도시에서 진행된 스케일 큰 작업까지, 작가의 넓은 스펙트럼이 이번 전시의 관람 포인트다. 전시는 작가가 작품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구성돼 그의 삶과 가치관에 배어있는 따뜻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요시고 사진전을 통해 잠깐이나마 여행에 대한 갈증을 잠재워 보는 것은 어떨까.



1 요시고 사진전 포스터, 2 요시고 사진전 전시장 전경, 3 Playa Hondarribia, Spain (Unknown), 4 La Grande Motte, France (2020), 5 San Sebastian, Spain (2020), 6 Miami, Florida, USA (2019).